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연구: 한국 영화 「옥자」, 「미나리」, 「승리호」 분석을 중심으로

윤 미 선
(동국대, 서울)

1. 서론

시각 장애인이 영상 텍스트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시각적 정보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자막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다. 전맹 혹은 저시력인(the blind or partially sighted)이 원본 텍스트의 자막을 온전히 읽을 수 없는 경우, 이들에게 영상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막을 읽어주는 음성 자막(audio subtitling) 서비스가 필요하다. 음성 자막을 “자막의 구어 혹은 청각적 재현”(Fryer 2013: 194)으로 정의할 경우, 자막을 읽어주는 문자 음성 변환(text to speech)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다.

전맹 혹은 저시력인을 위해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호에 대한 해설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음성 해설(audio description) 대본을 작성할 때, 모든 기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해설할 정보를 취사선택하게 된다. 이때 대사에 구심점을 두는 이유는 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음성 해설에서 제공하고자 함이다(Vercauteren 2012). 따라서 원본 텍스트의 대사가 음성 자막으로 대체될 경우 “영화 대사가 [화면의 시각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제공하는 고정

(anchorage) 기능을 음성 자막이 일부 없앨 수 있으므로”(Braun and Orero 2010: 176) 음성 해설가는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상호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호 시스템이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고자 경쟁하는”(Vercauteren and Orero 2013: 189) 영상 텍스트의 특성상 무작정 많은 해설을 음성 자막에 연결해서도 곤란하다.

음성 해설은 다양한 기호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하므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드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학에서 출발한 결속성 연구는 최근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결속성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모드 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분석하는 ‘멀티모달 결속성(multimodal cohesion)’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멀티모달 결속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 「옥자」(2017)와 「미나리」(2020), 「승리호」(2021)에 나타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번역학에서 미디어 접근성에 관한 연구

최근 영화 및 드라마는 제작한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언어 간 장벽을 넘어 영상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빙, 자막, 보이스오버 등의 모드를 활용한 영상 번역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 혹은 청각 장애로 인하여 자막, 더빙 등의 영상 번역 모드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subtitle for the deaf and hard or hearing), 음성 자막을 제작하여 영상물과 함께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 번역에서도 “미디어 접근성 연구가 한 분야로 자리매김”(Greco 2016: 23)하였다. 그레코(ibid. 22-24)는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인구의 8%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예로 들면서, 자막을 비롯한 영상 번역은 장애가 있는 시청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 번역 연구에서 멀티모달리티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야콥슨(Jakobson 1959/2000)이 주장한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을 넘어서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와 불분명한 청각적 정보를 해설하여 전달하는 음성 해설의 경우, 원본 영상 텍스트의 대사와 사운드와 겹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기호 자원의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호 간의 상호 작용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점점 증가하는 영상 텍스트의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음성 해설은 자막, 더빙 등 기존의 영상 번역과 결합하여 더 많은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 번역 연구에서도 미디어 접근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Remael, Reviere and Vandekerckhove 2016: 248).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도 비전문가의 음성 해설 제작과 관련한 이(Lee 2017)의 연구를 필두로 음성 해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이상빈 2019, 2020), 몸짓언어의 음성 해설 분석(서수연, 이상빈 2021), 비언어기호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유머가 음성 해설으로 나타나는 양상 분석(선영화 2021) 등 음성 해설에 관한 번역학적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2 음성 자막

2.2.1 음성 자막의 정의

아루에(Harrouet 2016: 8)는 음성 자막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음성 자막이 음성 해설에서의 ‘음성(audio)’과 ‘자막(subtitling)’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며 음성 해설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르마엘(Remael 2012)은 다음과 같이 음성 자막을 정의하며 음성 자막이 가진 혼합적 성격에 방점을 찍는다.

배우가 발화할 수 있도록 문자로 쓰인 영화 대사가 [원본의 언어를 모르는 관객들을 위해] 자막으로 압축되고 다시 쓰인 후, 이제는 ‘음성’ 자막으로 다시 소리 나게 읽힌다. 음성 해설은 [시각 장애인이 가진] 정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주로 대사와의 상호 작용에 의존하는데, 음성 자막이 활용된 작품의 경우 음성 해설은 [기존에 대사가 제공해왔던] 안정성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Remael 2012: 387, 작은따옴표는 원문의 강조를 그대로 옮김).

위의 인용과 같이 음성 자막은 음성 해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음성 자막의 근본이 되는 자막의 특성은 음성 해설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자막의 압축적인 성격 이외에도 아시스 로자(Assis Rosa 2001: 216)는 자막이 담화 표지 등 구어가 가진 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부자연스럽거나 지나치게 격식 있게 들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2.2.2 음성 자막의 효과

브라운과 오레로(Braun and Orero 2010: 181)는 음성 자막이 ‘더빙 효과(dubbing effect)’와 ‘보이스오버 효과(voice-over effect)’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투레기-가야르도(Iturregui-Gallardo 2020: 490)는 ‘효과’라는 단어를 전략 또는 기술(technique)과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음성 자막이 자막이나 보이스오버라는 영상 번역 모드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드와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음성 해설에 관한 지침을 담은 국제표준 기술작업 지침서인 ISO/IEC 200071-25(2015)에도 음성 자막의 재생 시 원본의 대사가 들리지 않는 경우 더빙 효과를, 원본의 대사가 같이 들릴 경우 보이스오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음성 자막이 더빙 효과를 낼 경우 원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외에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음성 자막은 원본 대사의 길이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며(Braun and Orero 2010: 181), 음성 자막을 읽는 성우의 연기를 동반하기도 한다(Remael 2012: 402; Remael, Reviers and Veracuateren 2015: 62).

보이스오버 효과는 원본의 목소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음성 자막이 들릴 때 발생하며, 원본 대사와 음성 자막의 목소리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음성 자막은 원본의 대사가 시작한 후 몇 초 후에 발화되며, 음성 자막은 문자를 크게 읽는 운율적 효과(prosodic feature)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으로써 문어적 특징을 많이 드러낸다(Iturregui-Gallardo and Matamala 2021: 67).

2.3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2.3.1 멀티모달 결속성

결속성은 할리데이와 하산의 연구(Halliday and Hasan 1976/2014)에서 최초로 제시된 개념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결속성은 텍스트 내의 “문법적, 어휘적 결속관계(cohesive ties)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ibid. 6)가 텍스트라는 더 큰 단위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텍스트 내에서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잇고 일관적인 의미를 담게 해주는 결속장치는 크게 문법적 결속장치와 어휘적 결속장치로 나뉜다. 먼저 문법적 결속장치를 살펴보면, 어휘적 결속장치는 지시(reference), 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으로 구성되며 접속(conjunction)은 문법과 어휘적 결속장치 모두에 해당된다. 문법적 결속장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시는 객관적 실체를 가리키는 직시(deixis)와 텍스트에서 언급한 대상을 지시하는 조응(anaphora)으로 구분된다. 조응은 이미 언급된 선행사를 대명사로 지시하는 전방 조응과 대명사가 먼저 언급된 뒤 지시되는 개체가 후행하는 후방 조응(cataphora)으로 나뉜다. 대용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쓰는 형식적인 용어”로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and Hasan 1976/2014)은 영어의 ‘that’과 ‘one’이 보이는 기능적 차이로 지시와 대용을 구분한다. 생략은 텍스트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서로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원문으로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일어나며 전달 내용의 이해를 촉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어휘적 결속성은 동일어 반복, 유의·반의·상하위 관계 등을 활용하여 실현된다.

할리데이와 하산의 응결 장치 개념을 멀티모달 텍스트에 적용한 리우와 오 할로란(Liu and O’Halloran 2009)은 기호간 결속장치 개념이 언어와 이미지의 결합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멀티모달 텍스트의 중요한 특성으로 본다. 영화학에 결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모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Janney 2010; Schubert and Sanchez-Stockhammer 2022; Tseng 2013)는 멀티모달 텍스트인 영화의 모드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

2.3.2 화면의 시각 정보와 음성 자막의 멀티모달 결속성

자막 번역 과정에서도 영화 내에서 발생하는 모드 간의 상호 작용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디아스-신타스와 르마엘(Díaz-Cintas and Remael 2021: 71)에 따르면 자막과 화면의 시각 정보가 결속성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막에 쓰이는 대명사는 화면의 시각 정보를 지시하며, 이 경우 시각 정보가 선행하고 대명사가 뒤따르는 전방 조응 관계를 주로 형성한다. 이와 같은 시각 정보와 대사의 관계는 자막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막은 원본 텍스트의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미지와도 일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ibid. 72). 둘째, 시각적 요소로 이미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대사에서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다. 화면 정보 없이 자막만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처럼 시각 정보를 고려한 삭제가 자막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ibid. 74).

음성 자막은 자막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자막의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흐비에와 르마엘(Reviere and Remael 2015: 52)에 따르면 음성 자막이 자막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수준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막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원본 텍스트의 대사를 이미 축소하거나 삭제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막이 그대로 음성으로 전달될 경우 시각 장애인 관객에게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Braun and Orero 2010: 176).

2.3.3 화면의 시각 정보와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음성 해설가들은 화면의 색깔이나 밝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인들의 작품 감상을 고려하여 해설하는 내용과 화면의 시각 정보가 동시성(synchronicity)을 가지도록 유의하라는 권고를 받는다(ITC 2000).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동시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 결속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 예컨대 등장인물이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고 해서 음성 해설에서 그 모자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모자를 들어 인사하는 동작 등이 나올 경우 음성 해설에 해당 시각 정보를 포함하면 된다(Remael, Reviere and Veracuateren 2015).

영화 안에는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는 만큼 어떤 정보를 어느 순서로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화 대사에 이미 언급된 시각 정보는 음성 해설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운드와 관련이 있는 시각 정보라면 시각 장애인 관객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정보일지라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Reviere 2017: 42).

테일러(Taylor 2014: 44-52)에 따르면 음성 해설 스크립트에는 고유 명사가

먼저 등장하고 이를 지시하는 대명사가 뒤따르는 전방 조응 관계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화면의 정보와 동시성을 고려하여 음성 해설 스크립트가 준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음성 해설에서 사용된 지시어와 시각 정보의 관계 역시 시각 정보가 선행하고 이를 가리키는 언어 정보가 후행하는 전방 조응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4 다중 언어 대사의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음성 해설은 영화의 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Braun and Orero 2010: 176) 원본 텍스트의 대사를 대신하는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 언어 대사의 음성 자막의 경우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문화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mael 2012: 387).

흐비에와 르마엘(Reviere and Remael 2015)은 음성 해설과 음성 자막의 멀티모달 결속성을 지시 및 어휘적 결속성, 보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시와 어휘적 결속성은 할리데이와 하산의 결속장치에서 차용한 개념이나, 보완(complementarity)은 영화 내의 여러 모드가 형성하는 ‘멀티모달 중복성(multimodal redundancy)’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학적 결속성과는 별개로 도입한 개념이다.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세 편의 다중 언어 영화를 대상으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을 분석한 결과, 음성 자막에 포함된 지시어가 추후에 음성 해설에서 설명되는 후방 조응 관계가 주로 발견되었고, 언어적 표현의 반복을 활용하여 어휘적 결속성을 형성하였으며, 비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여러 모드로 풍부하게 제공되는 멀티모달 중복성을 전달하기 위한 보완은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3. 분석 텍스트

3.1 영화 「옥자」(2017)

영화 「옥자」는 봉준호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 영화이자 「설국열차」(2013)에 이은 두 번째 다중 언어 영화다. 또한 한국의 제작사 두 곳과 미국의 제작사 한 곳이 협업하여 만든 한미 합작 영화로서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기도 하다.¹⁾ 또한 영화 「옥자」는 넷플릭스 스트리밍과 극장 개봉을 동시에 실시한 첫 번째 한국 영화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소녀 ‘미자’가 십여 년간 함께 자란 친구이자 가족인 돼지 ‘옥자’를 글로벌 기업 ‘미란도 코퍼레이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다. 이 과정에서 옥자의 구출을 돕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 ‘동물 해방 전선(Animal Liberation Front; ALF)’까지 얽히면서 옥자를 구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진다.

옥자와 옥자의 할아버지 등 한국인 등장인물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반면, 미란도의 CEO인 ‘루시’나 옥자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동물학자 ‘조니’, ALF의 리더 ‘제이’를 비롯한 일원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등장 인물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로 고정되어 있으나, ALF 내에서 통역사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한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인물이 만나는 경우 소통을 중재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가 통역을 하거나 문자로 소통을 하며²⁾, 중재하는 사람이나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3.2 영화 「미나리」(2020)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 가족의 여정을 다룬다.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
- 1) 영화 「설국열차」는 체코의 제작사와 협업하여 만들었으므로 미국의 제작사와 함께 만든 「옥자」가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라고 볼 수 있다.
 - 2) 제이는 뉴욕에 온 미자와 단들이 만난 신에서 소통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한국어가 적힌 낱말 카드를 들고 등장한다.

싶은 ‘제이콥’은 농장을 일구기 시작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모니카’도 병아리 감별사로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외할머니 ‘순자’가 오게 된다. 의젓한 큰딸과 달리 장난꾸러기 막내아들 ‘데이빗’은 여느 할머니 같지 않은 순자가 영 못마땅하다. 영화는 농장에 대한 제이콥과 모니카의 대립, 순자와 데이빗의 마찰을 중심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낯선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전형적인 한인 이민자 가족답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지만 언어의 비중은 등장인물마다 다르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집밖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안에서는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반면, 두 아이는 집안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다. 외할머니 순자는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 표현을 하며 손주들과 대화할 때는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섞어서 소통한다. 영화 「미나리」는 네이버 시리즈온(Naver Series On)이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있는 음성 해설본을 구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³⁾.

3.3 영화 「승리호」(2021)

영화 「승리호」는 극심한 오염으로 인해 많은 인간들이 지구에서 피폐하게 살고 있는 반면, 소수의 인간만이 우주 위성궤도에 만들어진 인공 도시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는 2092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설정한다. 우주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승리호’의 선원들은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되고, 돈이 절실한 승리호 선원들은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양극화를 만든 주범 UTS와 그 기업이 저지른 만행을 비롯한 어두운 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세계화가 정점으로 이루어진 미래 세계를 가정하였으므로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이 섞여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만, 등장인물들이 늘 귀에 꽂고 있는 동시통역기가 모든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해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승리호 선장인 ‘태호’를 위시한 선원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UTS의 CEO인 ‘설리반’과 그 주변 인물들은 영어를 쓰며,

3) 네이버 시리즈온의 ‘가치봄 영화관’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 음성 해설을 제공한다.

우주 청소부들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타갈로그어, 덴마크어, 나이지리아 피진⁴⁾ 등도 영화에서 들을 수 있다. 「승리호」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영화로 2021년 2월 5일에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으며 영어 더빙, 한국어 음성 해설 등을 지원한다.

3.4 분석 텍스트 선정 이유와 분석 방법

앞서 소개한 분석 텍스트인 영화 「옥자」, 「미나리」, 「승리호」는 음성 해설본에서 다중 언어 대사가 음성 자막으로 지원되는 작품으로, 모두 음성 자막이 보이소버 효과로 제작되었다. 또한 세 편 모두 다중 언어 대사의 사용이 영화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므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을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구를 개시한 시점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넷플릭스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서비스하는 한국 영화 음성 해설본 중 음성 자막을 포함한 영화는 이 세 편뿐이다.

음성 자막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음성 해설과 함께 전사를 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 간 멀티모달 결속성은 흐비에와 르마엘(Reviere and Rémacle 2015)이 제시한 지시 및 어휘적 결속성, 보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시와 어휘적 결속성은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and Hasan 1976/2014)의 결속장치에서 차용한 개념이나, 보완은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멀티모달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구자들이 별개로 도입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보완의 개념을 시각 장애인 관객에게 ‘영화 서사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멀티모달 중복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분석에 차용한다. 또한 분석 텍스트에서 이 분석틀을 벗어나는 멀티모달 결속성을 발견할 가능성 역시 열어둔다.

4) 피진(Pidgin)은 두 언어가 섞이면서 발생하는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접촉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계 언어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 영화 세 편의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 간 형성된 멀티모달 결속성 사례를 후방 조음, 전방 조음, 어휘적 결속성, 대체, 보완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4.1 후방 조음

호비에와 르마엘(Reviere and Remael 2015: 59-61)에 따르면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이 멀티모달 결속성을 형성할 때, 음성 자막에 포함된 지시어가 추후에 음성 해설에서 설명되는 후방 조음 관계가 주로 관찰된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발주한 음성 해설 프로젝트인 ADLAB(Audio Description: Lifelong Access for the Blind)에서 발행한 음성 해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사에서 대명사로 지칭된 것은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한 반드시 음성 해설에 그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Remael, Reviere and Veracuateren 2015: 53). 다음 사례는 영화 「승리호」에서 발췌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후방 조음 사례다.

<사례 1: 「승리호」의 후방 조음 예시>

음성 자막

(미국 청소부) 그놈들 아직 안왔지?

(중국 청소부) 누구?

(아랍 청소부) 누구겠어?

(러시아 청소부) 어제 지구 내려갔다던데 아직 안 왔겠지.

음성 해설

그것이 온다는 위험 경고가 뜨자 미국, 중국, 러시아, 아랍, 캐나다 청소부들이 크게 당황하며 욕설을 뱉는다. 선체가 붉은 거북선 모양의 승리호가 나타나 다른 청소부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미국, 중국, 아랍, 러시아 등 다국적 청소부들이 ‘그놈들’, ‘누구’ 등의 지시어로 지시하는 대상은 바로 한국인 선원들로 구성된 ‘승리호’다. 다국적 청소부들이 ‘위험 경고’까지 설정해 둘 정도로 승리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승리호가

우주쓰레기를 고공 포획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음성 해설에서는 음성 자막에서와 유사하게 ‘그것’이라는 지시어를 활용하여 음성 자막과의 결속성을 형성한 뒤, 지시대상인 승리호가 화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와 맞추어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을 공개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음성 자막에서 지시어가 먼저 언급되고 그 뒤에 따르는 음성 해설에서 지시 대상이 밝혀지는 전형적인 후방 조음 예시로 볼 수 있다. 다음 사례 역시 영화 「옥자」의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발견된 후방 조음 예시이다.

<사례 2: 「옥자」의 후방 조음 예시>

음성 자막

(루시) 하나 먹어 봐요. 끝장나게 맛있으니까.

음성 해설

프랭크는 루시가 준 식품을 받아들고 포장지를 벗긴다. 그런 뒤, 의자에 앉아 한 입 베어 먹어 본다.

음성 자막

(프랭크) 맛있네요. 죽인다.

음성 해설

루시가 뭔가를 먹으며 연신 감탄하더니 프랭크를 향해 노란색 포장지를 내보인다. 포장지에는 영어로 ‘육포’라고 적혀있다.

위의 사례는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해서 만든 슈퍼돼지로 만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루시를 분장실로 찾아온 프랭크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랭크가 분장실에 들어오자 루시는 뭔가를 건네며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고, 프랭크는 그 ‘식품’의 포장지를 벗겨 베어 문다. 루시 역시 ‘뭔가’를 먹다가 그 포장지를 프랭크에게 들어 보이면서 그 정체를 공개한다.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하나’, ‘식품’, ‘뭔가’로 지시된 제품의 정체는 옥자와 같은 슈퍼돼지로 만든 ‘육포’다. 루시가 제품을 프랭크에게 들어 보이는 동작을 취할뿐더러 영화의 화면에서 포장지 겉면에 쓴 ‘Super Pig Jerky’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음성 해설에서 제품의 본질(육포)을 공개하기 이전에는 대명사(‘뭔가’)

나 대용어(‘하나’⁶⁾), 상위어(‘식품’)를 사용하여 지시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을 피하며, 포장지에 적힌 글자와 함께 온스크린 자막(한국어 자막은 ‘슈퍼돼지 소시지’)이 등장한 이후에 음성 해설에서 그 지시대상을 언급하는 후방 조음 관계를 형성한다.

4.2 전방 조음

음성 해설가들은 화면의 색감이나 밝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인들의 작품 감상을 고려하여 해설하는 내용과 화면의 시각 정보가 동시성을 가지도록 유의하라는 권고를 받는다(ITC 2000).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화면에 시각 정보가 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비시각 장애인 관객이 그 정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옥자」의 예시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이 전방 조음을 이루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사례 3: 「옥자」의 전방 조음 예시>

음성 해설

노트북 화면에 한 슈퍼돼지가 강제로 끌려나오는 영상이 나온다. 실버는 고개를 돌려 버리고 레드는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는다. 옥자와 알폰소가 억지로 짜짓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케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레드는 입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린다.

음성 자막

(레드) 옥자를 실험실에 보내지 말았어야 해.
(실버) 체발 꺼주면 안 될까?
(블론드) 안 돼. 이걸 녹화해서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해.
(레드) 볼륨만이라도 좀 낮춰봐.

음성 해설

케이가 음량을 낮춘다.

-
- 5) ‘뭔가’는 대명사 ‘뭐’ 뒤에 서술격 조사 ‘-이’와 어미 ‘-니’이 결합한 구조다.
6) 고영근(2011: 103)의 대용어 분류 체계에 따르면 ‘하나, 둘’과 같은 수사 역시 사물의 수효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용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음성 자막

(레드) 우린 지옥인줄 알면서도 옥자를 저곳에 보냈어.

(블론드) 아니. 저런 짓까지 시킬 줄은 몰랐어. ‘짜짓기’를….

등장인물이 응시하고 있는 노트북의 장면에서 돼지가 보이고 울음소리가 들리나, ‘짜짓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시각 장애인이라도 해당 장면의 정체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블론드의 마지막 대사에서 작은따옴표는 한국어 자막의 부호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 부호는 등장인물들이 그토록 경악하고 끔찍해 하는 장면의 정체를 강조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이 옥자의 귀 밑에 부착한 카메라의 신호가 잡히는 실험실 근처에 잠복하고 있는 설정이기에 해당 신은 매우 어둡게 처리되었으며, 따라서 노트북 화면의 실체는 비시각 장애인 관객들에게 블론드의 ‘짜짓기’라는 단어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음성 해설에서는 노트북 장면이 등장할 때 장면의 장체를 미리 밝히고, 이를 음성 자막에서 ‘이걸’ 혹은 ‘저런 짓’으로 지시하는 전방 조음 관계를 구축했다.

다음 사례와 그림은 영화 「미나리」에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이 전방 조음을 형성한 예시를 보여준다. 화면의 시각 정보와 음성 자막 및 음성 해설의 관계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 사례는 <그림 1>의 쏫 번호(Shot 1, Shot 2, Shot 3) 정보와 함께 음성 해설 및 음성 자막의 전사를 표기하였다.

<사례 4: 「미나리」의 전방 조음 예시>

음성 해설

[Shot 1]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수맥 탐지사가 알파벳 Y자 모양의 나무 막대를 [Shot 2]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음성 자막

(수맥 탐지사) 나는 물을 생각한다. [Shot 3] 나는 물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 막대가 해준다.

〈그림 1〉 영화 「미나리」의 전방 조음 사례



위의 <그림 1>에서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남자의 정체는 [Shot 2]의 자막이 나오기 전까지 비시각 장애인 관객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음성 해설에서는 [Shot 1]의 화면이 나오는 동안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남자의 직업(‘수맥 탐지사’)과 화면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Y자 모양의 나무 막대’라는 시각 정보를 미리 제시한다. [Shot 3]에서 카메라가 수맥 탐지사에서 데이빗과 제이콥으로 천천히 패닝을 하는데, 이때 수맥 탐지사의 손에 들려 있는 나무 막대기의 모양이 Y자인지는 시각적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음성 해설에서는 나무 막대기가 시각 정보로 등장하기 전인 [Shot 1]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막대기의 정체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음성 자막에서 ‘이 막대’라는 표현으로 음성 해설과 전방 조음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4.3 어휘적 결속성

어휘적 결속성은 주로 어휘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며, 반복을 통해 화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전체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사례는 영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휘적 결속성의 사례로 영화 「미나리」에서 발췌하였다.

<사례 5: 「미나리」의 어휘적 결속성 예시>

음성 자막

(데이빗) 산에서 온 이슬물을 줘보자.

(앤) 안돼. 물만 줘.

음성 해설

데이빗과 앤은 병아리를 보고 있다.

〈그림 2〉 영화 「미나리」의 어휘적 결속성 사례



순자는 미국에 온 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에서 온 이슬물’을 자주 찾는다. 산에서 온 이슬물은 사실 아이들이 ‘마운틴 듀(Mountain Dew)’라는 미국산 탄산수를 할머니에게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대사는 영화 러닝 타임 11:09분으로 할머니인 순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다. 위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자막에는 ‘마운틴 듀’라고 음차 번역되어 있으나 음성 자막에서는 밀줄 친 바와 같이 ‘산에서 온 이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 「미나리」의 음성 해설본은 작품 전체의 어휘적 결속성을 위해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 모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산에서 온 이슬물’ 혹은 ‘이슬물’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4.4 대체

본 절에서 소개할 사례들은 음성 자막의 지시어가 지시대상으로 대체된 예시들로, 화면의 시각 정보가 음성 자막 안에 녹아든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영화 「승리호」의 음성 해설 한 구절이다.

<사례 6: 「승리호」의 대체 예시>

음성 해설

연구원들이 그 아이가 맞다면 손목시계 신호가 울렸을 거라며 태호를 끌어내려 한다.

위의 음성 해설은 원본의 대사인 “If it was her, you’d get an alert.”가 들리고 “그 아이가 맞는다면 이거부터 울렸겠지”라는 한국어 자막이 나올 때 보이스오버로 발화된다. 이때 한국어 자막은 “그 아이가 맞는다면 이거부터 울렸

겠지”인 반면, 음성 해설에서는 자막의 ‘이거’라는 지시어를 화면에 등장한 ‘손목시계’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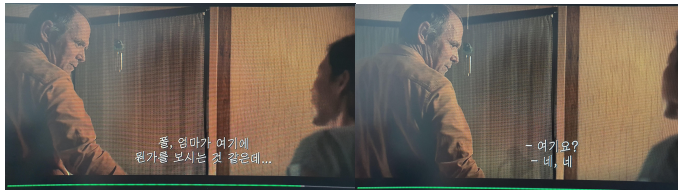
<사례 7: 「미나리」의 대체 예시>

음성 자막

(모니카) 폴, 엄마가 여기 서랍장에서 뭔가를 보시는 것 같은데...

(폴) 서랍장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림 3> 영화 「미나리」의 대체 사례



영화 「미나리」의 중반부에 이르면 순자와 데이빗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하루는 데이빗이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는 할머니의 마운틴 듀 잔에 자기 소변을 넣어 할머니에게 먹인다. 이 사건으로 데이빗은 크게 혼나지만, 이후 서랍장을 열다가 다친 데이빗을 순자가 치료해주며 둘의 사이는 회복된다. 바로 그 다음날 순자는 뇌졸중에 빠지게 되고,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손자인 데이빗을 다치게 한 서랍장을 계속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모니카가 퇴마를 할 줄 안다는 폴을 집에 초대하고 순자가 계속해서 쳐다보는 곳을 폴에게 알려주며 퇴마를 요청한다. 위의 <그림 3>과 같이 한국어 자막에는 모니카가 ‘여기’라고 지칭하고 폴도 ‘여기요?’라고 되묻지만, 음성 자막에서는 이를 ‘서랍장’으로 대체하여 화면의 시각 정보를 음성 자막 안에 포함하여 전달한다.

4.5 보완

보완은 영화 내의 여러 모드가 형성하는 멀티모달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학적 결속성과는 별개로 호비에와 르마엘(Reviere and Rémuel 2015)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비시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멀티모달 중복성을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모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시각 장애인 관객의 영화 감상에 꼭 필요한 멀티모달 중복성을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4.5.1과 같이 보완이 잘 된 사례도 있었으나 4.5.2와 4.5.3의 사례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4.5.1 한국어 자막의 생략 현상의 보완

한국어는 영어보다 생략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박청희(2012)에 따르면 영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을 통계적으로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한국어 자막에 생략된 주어나 목적어를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영화 「옥자」의 결말 부분 중 슈퍼돼지 생산 라인 신에서의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일부다.

<사례 8: 「옥자」의 생략 예시>

음성 해설

제이와 케이이 밖으로 끌려 나간 뒤 낸시가 엄지를 아래로 내려 손짓한다.

음성 자막

(프랭크) 처리해. (Termínalo.)

<중략>

음성 자막

(낸시) 미란도 돼지 첫 구매자니까. 거래 즐거웠어.

(프랭크) 풀어줘. (Libéralo.)

음성 해설

미자가 깜짝 놀라 옥자를 돌아본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몸부림을 치던 옥자가 이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옥자를 구출하기 위해 ALF 단원인 제이와 케이와 함께 슈퍼돼지 공장으로 간 미자는 총으로 옥자를 쏘아 죽이려는 공장 직원을 발견한다. 미자는 마침 공

장을 방문한 미란도 그룹 CEO인 낸시에게 옥자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위의 사례에서 낸시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린다는 음성 해설에 이어 음성 자막으로 “처리해”라는 대사가 들리는데, 원본 대사와는 달리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원본의 대사는 스페인어⁷⁾인 “Termínalo”로, 마지막 어절인 ‘lo’는 직접 목적격 대사로써 옥자를 지칭한다. 미자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금돼지를 옥자를 사겠다고 하자 낸시는 옥자를 풀어주기로 한다. 이때 역시 프랭크가 히스패닉계 직원에게 스페인어로 “Libéralo”라고 명령하며, 한국어 자막에서는 원본 대사와 다르게 목적어가 생략된 “풀어줘”로 번역된다. 해당 음성 자막 뒤에 따르는 음성 해설은 앞서 생략된 목적어가 기계에 갇힌 ‘옥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음성 자막을 보완한다.

4.5.2 사운드의 보완

영상 텍스트의 음성 해설 작업을 할 때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결속성과 서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와 사운드의 연결고리를 재창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Braun 2011: 646). 아래 사례는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사운드 보완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예시이다.

<사례 9: 「옥자」의 사운드 보완 예시>

음성 해설

조니가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가 휘청대며 옆에 있는 소형 냉장고 문을 연다.

음성 자막

(조니) 살았다. [헛구역질] 누가 물 좀 갖다 주면 안되나?

영화 「옥자」에서 미란도 그룹은 26개국에 슈퍼돼지 새끼를 보내 각국의 전통 방식으로 기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물학자인 조니에게 가장 잘 기른

7) 슈퍼돼지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에는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미자와 ALF 단원들이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소음으로 스페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낸시의 부하인 프랭크는 총을 들고 있는 직원에게 스페인어로 지시하며, 영어 자막 역시 번역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그대로 적었다.

슈퍼돼지를 심사하도록 한다. 조니는 그 슈퍼돼지 중 한 마리인 옥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미자네 집에 오게 되는데, 산 중턱에 있는 집에 오는 길이 꽤 힘들었는지 오자마자 가쁜 숨을 내쉬며 옥을 내뱉는다. 그 뒤로 조니는 위의 음성 해설과 같이 냉장고의 문을 열지만, 헛구역질을 하고 난 뒤 음성 자막으로 “누가 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다. 그러나 음성 해설을 감상하는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헛구역질 소리가 나는지, 왜 물을 달라는 대사가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측에 기댈 수밖에 없다. 조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는 냉장고 안이 신발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러한 시각 정보는 헛구역질의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는 음성 해설 정보와 헛구역질 소리, 그리고 물을 가져다 달라는 음성 자막을 자연스럽게 잇고 관객이 쓸모없는 인지적 소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로 가득 찬 냉장고’라는 시각적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

4.5.3 등장인물 감정 표현의 보완

영화 「옥자」의 초반부에는 ALF 단원이 옥자를 납치한 후 미자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며 납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다음 사례에서는 등장인물 중 한국계 미국인인 케이이 통역을 맡아 단원들의 말을 설명하고 미자에게 옥자를 뉴욕에 데려가도 되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사례 10: 「옥자」의 캐릭터 감정 표현 보완 예시>

원본 대사

(케이) 만약에 허락 안하면 작전 안 할 거야.

음성 자막

(케이) 결정했나?

원본 대사

(케이) 어떻게 하고 싶어?

(미자) 옥자랑 산으로 갈래요.

음성 자막

(케이) 우리 작전 허락했어. (She agrees to the mission.)

음성 해설

케이가 멤버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위의 사례의 첫 번째 밑줄의 내용과 같이 미자가 “옥자랑 산으로” 간다는 명백한 거절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두 번째 밑줄 친 음성 자막과 같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통역한다. 이 음성 자막 뒤에 이어지는 음성 해설은 케이가 “미소를 지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직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에 대한 중립적인 설명이다. 다만 아래 <그림 4>의 장면에 담긴 시각 정보가 케이의 웃는 모습 전에 등장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 영화 「옥자」의 보완 사례



위의 <그림 4>에 클로즈업으로 잡힌 케이의 손은 위의 사례에서 미소를 지어 보이기 이전에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영화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옥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 ALF 단원들이 뉴욕에서 작전을 펼치기 직전, 옥자가 강제로 짹짹기를 하는 장면을 본 뒤(<사례 3> 참조) 죄책감을 느낀 케이는 자신이 미자의 말을 잘못 통역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그 사실을 털어놓기 직전에 <그림 4>와 같이 손톱을 뜯는 행위가 다시 클로즈업으로 나온다. 영화 「옥자」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은 옥자를 뉴욕으로 데려가는 일로 이는 케이의 거짓 통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짓 통역을 한 직후와 이를 고백하는 장면 직전에 위와 같은 클로즈업 숏이 반복되었다면 한국어 음성 해설과 같이 “미소를 지어 보인다”라는 묘사 대신, 케이의 불안함과 긴장을 보여주는 <그림 4>의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장애인 관객은 케이가 미자의 말을 잘못 옮겼다는 사실을 음성 자막을 통해 알 수 있지

만, 그 뒤에 따르는 얼굴 표정에 대한 해설은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비시각 장애인 관객은 케이의 미소 짓는 장면과 더불어 손톱을 뜯는 장면에서 죄책감과 불안을 읽을 수 있으나, 시각 정보에 제한을 받는 관객을 위해서는 음성 자막과 결속성이 좀 더 높은 시각 정보를 잘 선택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고는 한국 영화의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에서 나타난 멀티모달 결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방 조음이나 생략을 통해 화면의 시각 정보와 결속성을 형성하는 자막의 특성상(Díaz-Cintas and Remael 2021: 71-74) 음성 자막이 자막을 그대로 읽을 경우 지시어가 선행하고 지시대상이 후행하는 후방 조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시각 정보의 해설을 주로 전방 조음으로 풀어나가는 음성 해설의 결속성 양상(Taylor 2014: 44-52)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음성 해설 대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방 조음을 활용하여 지시대상을 먼저 밝힐 경우 <사례 4>와 같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관객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 조음의 경우는 5장에 언급한 것처럼 영화의 전체적 서사 전개상 필요할 수도 있으나 관객에게 스포일러(spoiler)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어 자막과 다르게 음성 자막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휘적 결속성을 형성한 사례를 분석했다. 예컨대 <사례 5>는 어휘적 결속성 유지로 인해 작품 감상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감상을 저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을 제공한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한약을 먹기 싫은 나머지 데이빗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산에서 온 이슬물 대신 소변을 그릇에 채워갔다가 혼이 나기도 하는 등 ‘Mountain Dew’의 번역인 산에서 온 이슬물은 영화에서 아이들과 할머니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그러나 <사례 5>와 같이 영화에서 마운틴 듀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음성 자막에서 산에서 온 이슬물이라고 처리한다면, 화면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각 장애인 관객들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텍스트 전체에 걸쳐 동일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어휘적 결속성을 구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음성 해설 관객의 작품 감상 측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이는 미디어 접근성을 너머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감상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예컨대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 1번이었던 ‘일남’의 이름은 게임에서 탈락하여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서만 밝혀지지만(총 9회차 중 6회차),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으로 시청한 관객은 참가자 1번의 이름을 1회차부터 알게 되어 작품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비시각 장애인과 동일하게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안희제 2021.10.27).

넷째, 한국어 음성 자막에서 지시어를 지시대상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음성 자막에서 지시대상을 언급함으로써 음성 해설의 필요가 적어지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음성 해설 대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음성 자막의 지시어가 지시대상으로 대체된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한국어 음성 자막이 가진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성 자막에서 생략된 품사를 음성 해설에서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운드의 보완과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에 대한 보완은 그 보완에 실패한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다. 대사와 화면의 시각 정보, 기타 사운드를 통해 다양한 모드로 정보를 전달 받는 비시각 장애인과 다르게 시각 장애인 관객은 멀티모달 중복성을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음성 자막 뒤에 연결되는 음성 해설 내용의 정보를 선별할 때 사운드(<사례 9>),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사례 10>)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각 정보를 고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음성 해설에서 영화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전달하되 음성 해설 자체로 완결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Braun 2011: 660)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음성 자막을 소개하고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관계를 멀티모달 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음성 해설

대본을 쓰는 과정은 끊임없는 선택과 다른 요소와의 결합의 과정이므로 원본 영상 콘텐츠와 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거친 후에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멀티모달 결속성에 관한 사례 분석에서 시각 장애인 관객의 감상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분석 텍스트의 편수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번역학 내에서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향후 음성 자막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2011) 『텍스트 과학』, 파주: 집문당.
- 박창희 (2012)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통계적 접근-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6: 171-192.
- 서수연, 이상빈 (2021) 「한국 드라마의 몸짓언어가 음성해설(화면해설)로 번역되는 양상과 실무에의 함의 고찰」, 『통역과 번역』 23(3): 111-134.
- 선영화 (2021) 「귀로 듣는 슬랩스틱 코미디: ‘라바 아일랜드’의 화면해설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3): 135-166.
- 이상빈 (2019) 「화면해설 (audio description)에서의 객관성 개념 분석: 지침, 연구자, 작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119-150.
- 이상빈 (2020)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과 인물의 심리·감정 표현: 배리어프리 영화 ‘앙리 앙리’(Henri Henri)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21(1): 139-158.
- Assis Rosa, Alexandra (2001) ‘Features of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in Subtitling’, in Yves Gambier and Henrik Gottlieb (eds) *(Multi)media Translation: Concepts, Practices, an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213-221.
- Braun, Sabine (2011) ‘Creating Coherence in Audio Description’, *Meta* 56(3): 645-662.

- Braun, Sabine and Pilar Orero (2010) ‘Audio Description with Audio Subtitling: An Emergent Modality of Audiovisual Localisation’, *Perspectives* 18(3): 173-188.
- Dí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21) *Subtitling: Concepts and Practi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ryer, Louise (2013) *Putting It into Words: The Impact of Visual Impairment on Perception, Experience and Presence*, PhD dissertation, London: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 Greco, Gian Maria (2016) ‘On Accessibility as a Human Right, with an Application to Media Accessibility’, in Anna Matamala and Pilar Orero (eds) *Researching Audio Descrip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11-33.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and Ruqaiya Hasan (1976/2014) *Cohesion in English*, London: Routledge.
- Harrouet, Chloé (2016) *Multilingualism in Audio Description: Audio Subtitling*, MA thesis, London: University of Roehampton.
- ISO/IE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15) *Information Technology — User Interface Component Accessibility — Part 21: Guidance on Audio Description (ISO/IEC TS 20071-21)*. Available at <https://www.iso.org/obp/ui/fr/#iso:std:iso-iec:ts:20071:-21:ed-1:v1:en>
-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2000) *ITC Guidance on Standards for Audio Description*. Available at http://audiodescription.co.uk/uploads/general/itcguide_sds_audio_desc_word3.pdf
- Iturregui-Gallardo, Gonzalo (2020) ‘Rendering Multilingualism through Audio Subtitles: Shaping a Categorisation for Aural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7(4): 485-498.
- Iturregui-Gallardo, Gonzalo and Anna Matamala (2021) ‘Audio Subtitling: Dubbing and Voice-over Effects and Their Impact on User Experience’, *Perspectives* 29(1): 64-83.

- Jakobson, Roman (1959/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and Mona Baker (eds)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3-118.
- Janney, Richard (2010) 'Film Discourse Cohesion', in Christian Hoffmann (ed.) *Narrative Revisited: Telling a Story in the Age of New Media*, Amsterdam: John Benjamins, 245-266.
- Lee, Sang-Bin (2017) 'Audio Description in the Digital Age: Amateur Describers, Web Technology and Beyond',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13-34.
- Liu, Yu and Kay O'Halloran (2009) 'Intersemiotic Texture: Analyzing Cohesive Devices between Language and Images', *Social Semiotics* 19(4): 367-388.
- Louhema, Karoliina, Jordan Zlatev, Maria Graziano and Joost van de Weijer (2019) 'Translating from Monosemiotic to Polysemiotic Narratives: A Study of Finnish Speech and Gestures', *Sign Systems Studies* 47(3): 480-525.
- Remael, Aline (2012) 'Audio Description with Audio Subtitling for Dutch Multilingual Films: Manipulating Textual Cohesion on Different Levels', *Meta* 57(2): 385-407.
- Remael, Aline, Nina Reviere and Gert Vercauteren (2015) Pictures Painted in Words: ADLAB audio description guidelines. Available at <http://www.adlabproject.eu/Docs/adlab%20book/>
- Remael, Aline, Nina Reviere, and Reinhild Vandekerckhovev (2016) 'From Translation Studies and Audiovisual Translation to Media Accessibility: Some Research Trends', *Target* 28(2): 248-260.
- Reviere, Nina (2017) *Audio Description in Dutch: A Corpus-based Study into the Linguistic Features of a New, Multimodal Text Typ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ntwerp.
- Schubert, Christoph and Christina Sanchez-Stockhammer (2022) 'Introducing Cohesion in Multimodal Discourse', *Discourse, Context & Media* 45:

1-5.

- Sonesson, Göran (2014) 'Translation and Other Acts of Meaning: In between Cognitive Semiotics and Semiotics of Culture', *Cognitive Semiotics* 7(2): 249-280.
- Taylor, Christopher (2014) 'Textual Cohesion', in Anna Maszerowska, Anna Matamala and Pilar Orero (eds) *Audio Description: New Perspectives Illustrated*, Amsterdam: John Benjamins, 29-60.
- Tseng, Chiao-I (2013) *Cohesion in Film*, London: Palgrave Macmillan.
- Vercauteren, Gert (2012) 'A Narratological Approach to Content Selection in Audio Description. Towards a Strategy for the Description of Narratological Time', *MonTI: Monografa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4: 207-231.
- Vercauteren, Gert and Pilar Orero (2013) 'Describing Facial Expressions: Much More than Meets the Eye', *Quaderns: Revista de Traducció* 20: 187-199.

<인터넷 자료>

안희제 (2021. 10. 27) 「'오징어 게임'과 비평의 조건」, 『비마이너』, 2022년 4월 23일 검색.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8>

<분석 텍스트>(영화 제목 옆 괄호는 개봉년도, 순서는 음성 해설본 서비스 순서)
「옥자」(2017). 넷플릭스. 2017년 6월 스트리밍 시작.
「승리호」(2021). 넷플릭스. 2021년 2월 스트리밍 시작.
「미나리」(2020). 네이버 시리즈온. 2021년 9월 VOD 서비스 시작

[Abstract]

**Multimodal Cohesion between Audio Description and
Audio Subtitling in Accessible Films:
An Analysis of *Okja*, *Minari* and *Space Sweepers***

Miseon Yoon
(Dongguk University, Seoul)

Audio Subtitling (AST) is a spoken or aural rendering of subtitles. When combined with Audio Description (AD), AST is aimed at blind and partially sighted audiences. Based on the types of multimodal cohesion suggested by Reviere and Remael (2015),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modal cohesion formed between AST and AD in *Okja* (2017), *Minari* (2020) and *Space Sweepers* (2021). Generally speaking, referents are cataphorically identified by the AD, as the visual-verbal links in subtitled films are usually anaphoric. However, other types of multimodal cohesion are identified. The results show five different types of multimodal cohesion: cataphoric reference, anaphoric reference, linguistic cohesion, substitution and complementarit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valuate the extent of multimodal cohesion created between AST and AD in an audio described version.

Keywords: audio subtitling, audio description, multimodal cohesion, *Okja*, *Minari*, *Space Sweepers*

주제어: 음성 자막, 음성 해설, 멀티모달 결속성, 옥자, 미나리, 승리호

윤미선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과 BK21 Four 미래인재양성사업팀 박사후연구원

moonyruna@naver.com

관심분야: 영상 번역

논문투고: 2022년 5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5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6월 13일

게재 확정: 2022년 6월 18일